

장관면역영양에 의해 호전된 골반안염증과 패혈증을 동반한 끈은창자궤양 1예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최여원 · 김정옥

배경 : 장관영양은 장관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전신상태가 좋지 않은 환자에서 좋은 영양법으로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경구 내지는 도관을 통하여 공급한다. 장관영양은 장관장벽을 유지하여 장내세균전위를 방지하고, 이차적으로 패혈증과 같은 감염성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 장관면역영양은 장관영양의 일종으로 장관장벽손상을 예방하거나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약물과 같은 효과를 보이는 영양소인 아르기닌, 글루타민, 뉴클레오타이드, 오메가-3 다중불포화지방산 등을 추가적으로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저자들은 골반안염증과 패혈증을 동반한 끈은창자궤양 환자에서 면역영양을 이용한 장관영양으로 호전된 예를 경험하여 보고한다.

증례 : 45세 남자환자가 3일전에 발생한 하복부통증으로 개인병원에 입원하고 있다가 전원되었다. 환자는 패혈증이 동반되어 있었으며 항문에서 15 cm 상방에 경계가 불명확한 지도상의 궤양이 관찰되었다. 조직검사에서는 양성궤양과 염증소견이 관찰되었다. 10일 간의 정맥영양과 항생제 치료 후 패혈증은 개선이 되었으나 직장의 궤양은 호전되지 않고 골반안 염증이 발생하였다. 항생제를 계속 정맥투여하면서 면역영양치료제인 이뮤널란액을 일일 1,200 mL를 투여하였으며 2주후 직장궤양이 호전되면서 골반안 염증이 소실되었다. 환자의 직장궤양은 8주 후 완전치유 되었다.

소유두에 발생한 이소성 췌장의 내시경적 제거 1예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해부병리학 교실²

*송준영 · 김규종 · 문원 · 박무인 · 박선자 · 김영옥²

서론 : 십이지장 소유두(minor papilla)에 종양이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소성 췌장은 췌장 조직이 원래의 위치가 아닌 곳에 있으며 췌장 본체와 해부학적으로 연결이 없는 것을 말한다. 소유두에 발생한 이소성 췌장에 대한 보고는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극히 드물다. 또한, 십이지장 소유두는 상부 위내시경에서 쉽게 관찰하기 힘든 위치에 있어 종양이 있어도 간과하기 쉽다.

증례 : 50세 남자로 상부 위내시경에서 우연히 십이지장 종괴가 발견되어 내원하였다. 고혈압 외 특이한 과거력은 없었으며 약물 복용력도 없었다. 내원 당시 검사실 소견이나 신체 소견은 정상이었다. 내원 후 시행한 십이지장경에서 소유두에 경도의 발적 외 정상 점막으로 덮여 있는 약 1.5cm 크기의 반구형 점막하 종양이 관찰되었다. 그 원위부에 위치한 대유두(major papilla)는 정상이었다. 내시경초음파검사서 약 0.9cm 크기의 저에코성 병변이 점막하층에 국한된 소견을 보였고, 내부에 관모양의 무에코성 구조물이 관찰되었다. 복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 약 1.5 cm의 조영증강이 되지 않는 병변이 십이지장 하행부에서 관찰되었고, 간담도계와 췌장 등 타 장기에는 특이 소견이 없었다. 자기공명췌담관조영술에서 담관이나 췌관은 정상이었다. 진단 및 치료목적으로 점막하층에 에피네프린을 3% 식염수에 1:10000으로 희석한 용액을 주입하고 용종절제용 올가미를 이용하여 병변을 충분히 포획한 후 Endo cut mode로 40W의 전류를 통전하여 종양을 성공적으로 절제하였다. 절제 후 출혈이나 천공 등의 급성 합병증은 없었다. 조직학적 소견에서 0.7cm 크기의 점막하 종양이 관찰되었고 종양은 완전히 절제되었다. 종양은 췌장의 소포와 췌관 및 랑게르한스섬으로 구성된 이소성 췌장이었다. 환자는 급성 합병증 없이 3일 후 퇴원하였다. **결론 :** 저자들은 십이지장 소유두에 점막하 종양이 의심되어 초음파내시경 등의 검사로 확인한 후 내시경적 절제술로 제거한 증례를 보고하는 바이며, 드물지만 이소성 췌장도 소유두 점막하 종양의 감별진단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